





Good Morning  
**ASIA**

2014 **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굿모닝  
INCHEON **인천**



**&**

2014 **4**





## “우린, 핸드폰과 컴퓨터에 애걸<sup>girl</sup> 복걸<sup>girl</sup> 하지 않아요”

골목이 갑자기 왁자지껄 해집니다.  
가방을 한쪽에 밀어 넣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소녀의 손에는 축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편을 갈라 피구를 합니다.  
씩씩한 걸(girl)  
해맑은 걸(girl)  
그 모습이 정말 예쁜 걸(girl).  
- 남구 송의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06 봄꽃 계양산에 피는 꽃
- 08 드라마 in 인천 별에서 온 그대
- 10 스페셜 봄 농장
- 16 Taste of Spring 인천의 봄맛
- 22 Culture Info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외
- 24 내 길 내 일 여승 서복례
- 26 사회적기업 (주)청솔노인요양센터
- 27 그린 인천 승용차선택요일제
- 28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 30 차 한잔 인천공보 편집장 이준규
- 32 News Brief ‘한국판 라스베가스’가 생긴다 외
- 36 이달의 서평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외
- 37 모닝커피 한잔 신현수 시인
- 38 생활정보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 안내’ 외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4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중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유창호(자유 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이천십사년 사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4

contents

-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대만
- 49. 에티켓  
승차 예법
- 50. 2014 인천AG 소식  
‘메이저리거 추신수 인천AG 홍보 나서’ 외
- 52. 줌 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태국
- 58.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외
- 60. 아시아를 배우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표지이야기

▶ 바야흐로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풍년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농악대들이 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마음이 흥겹고 즐거우면 농사도 잘되고 다른 일도 만사형통이다. 봄은 농부를 달아 부지런히 부지런히 달려간다.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40억 아시아인들이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 @Bulloger

시민께서 인천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가정지하차도를 폐쇄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인가요?**

해당 사항을 시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 담당자(440-3323)에게 문의한 결과 가정지하차도는 지난 2월 28일 폐쇄해 철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폐쇄 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마련해 루원시티 사업 완료 시점까지 둘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빗물저금통이 있나요?**

시 환경녹지국 하수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 현재 빗물저금통 관련 사업의 진행 및 계획은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동인천 배다리 벽화마을에 빗물저금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구청도 트위터를 만들어 주세요. 못 찾겠네요.**

반갑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은 동구청 홍보기획팀(770-6093)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동구청에 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동암역 부근에 살고 있는데, 주말에 수강 할 수 있는 요리학원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정보를 주세요.**

생활정보는 포털 사이트에 조회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 조회 결과, 경인제과요리학원(432-4888) 및 음식나라조리학원(429-3100)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화 연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상담은 쪽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봄꽃처럼 고운 마음의 인천사람

독자 김정희(51, 구월동)



김정희님은 남동구 화훼단지에서 '인수꽃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인천으로 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2002년부터 줄곧 이곳에서, 세상에 꽃향기를 퍼트리며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남편 대학원 뒷바라지까지 해왔습니다. 그저 꽃이 좋고, 꽃 같은 사람들이 좋다는 맘씨 고운 우리이웃입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지만 30여 년을 살아 온 인천은 내게 있어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오래도록 남동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연수구에서 살며 주민들과 정을 쌓아왔다. 인천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알면 알수록 정이 깊고 살갑다.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회원으로 '굿모닝인천'을 받아 보고 있다. 인천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어서 좋다. 살면서 인천 바다에도 가보고 옛 추억이 어린 장소도 가보고 싶지만, 생활하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책장을 넘기며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관광지를 눈으로 마음으로 여행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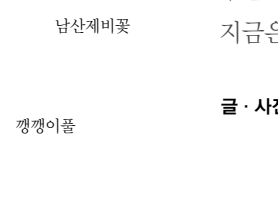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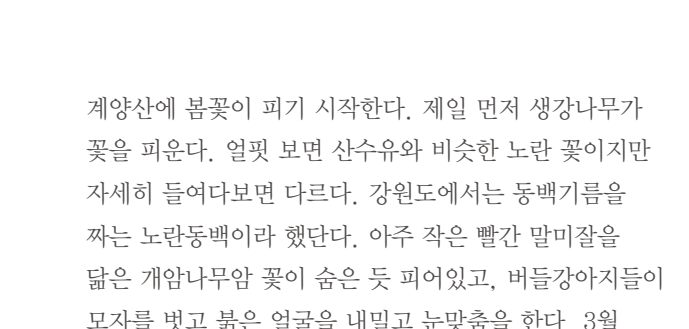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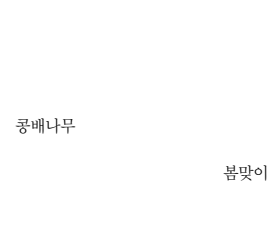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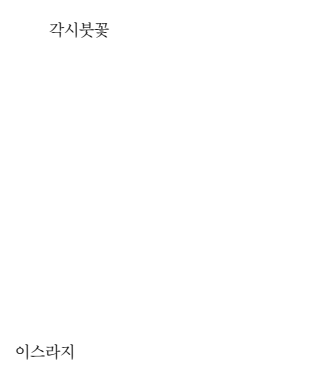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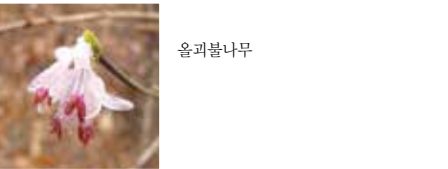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오는 9월이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인천시민으로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려, 인천 시민은 물론 전 국민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감동을 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희망이다. 대회를 계기로 인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계양산에 봄꽃이 피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생강나무가 꽃을 피운다. 얼핏 보면 산수유와 비슷한 노란 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강원도에서는 동백기름을 짜는 노란동백이라 했었다. 아주 작은 빨간 말미잘을 닮은 개암나무암 꽃이 숨은 듯 피어있고, 버들강아지들이 모자를 벗고 붉은 얼굴을 내밀고 눈맞춤을 한다. 3월 중순이 지나면 연분홍 꽃주머니 두 개 달린 울괴불나무와 진달래가 만발하여 오가는 이들과 인사를 나눈다. 야생화는 좀 늦은 노란 복수초, 하얗고 노랗게 핀 노루귀, 양지바른 무덤가에 털복숭이 할미꽃과 종달새를 닮은 현호색, 향수 가득한 남산제비꽃 등이 활짝 피어 계양산을 찾는 이들의 맘을 설레게 한다. 계양산 식물 중 유일하게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깽깽이풀과 자주색 족도리풀의 희귀종인 녹색족도리풀은 수년 전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채취되어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 없다.

글 · 사진 유종반(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이 꽃들을

맘껏 누리







## 도민준의 사랑은 아직도 진행중~

글 김윤경 I-View 편집위원 사진 (주)HB엔터테인먼트

400년을 기다려 온 도민준의 사랑이 아직도 뜨겁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종영했는 데도, 그 인기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극중 천송이처럼 '치맥'을 즐기는 유행이 퍼지고 있는가 하면, 촬영지로 알려진 곳들은 방송 직후 방문자 수가 급증했다. 도민준과 천송이의 달달하고 로맨틱한 모습이 여전히 그림자면 인천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인천 곳곳에 남겨진 도민준의 흔적을 찾으며 '나에게도 400년의 기다림 같은 달콤한 사랑이 올까...', 한 번쯤은 상상해봐도 즐겁지 않을까?

### 드라마 배경이 인천이었다고?

“병자년 방죽을 부리는군”, “이런 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앓을 놈들.” 도민준이 낮게 읊조리던 조선시대 옥설도 부드럽게 들릴 만큼 수 많은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했던 ‘별에서 온 그대’.

조각처럼 완벽한 도민준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대륙까지 ‘별그대 앓이’는 여전히 있다. 이런 ‘별그대’의 주요 촬영지가 바로 인천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주말마다 인천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 곳곳에서 멋진 배경을 이뤄냈던 주요 촬영지는 어디였을까?

먼저, 도민준이 강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곳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다. 한국 속의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이 곳에서는 도민준과 천송이가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 뽕점짜리 과제물로 다투고, 도민준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천송이를 구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천송이의 위험을 직감한 도민준이 빗속을 질주하는 장면은 송도 센트럴파크로에서 촬영했다. 이 곳은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들어오는 브런치 카페와 실내 놀이터로 유명한 딸기키즈 뮤지엄, 송도국제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북카페 부밀리 등이 모여있다.

또 도민준이 천송이에게 옥비녀를 보여주고 천송이가 도민준의 정체성을 깨닫는 장면 등을 촬영한 곳은 인천시립박물관이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한 사료가 보관되어 있다.

특히 극중 도민준이 400년 전 이화를 위험에서 구했으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를 보낸 곳이자 현세에서 천송이를 구해낸 장소로, 누리꾼 사이에서 ‘별그대 절벽’으로 불리고 있는 곳은 바로 송도 석산이다.

### ‘별그대 in Incheon’

앞으로는 드라마 ‘별그대’를 관광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별그대’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요 촬영지인 인천대와 인천시립박물관, 송도 석산 등의 코스들로 구성된 관광상품 ‘별그대 in Incheon’을 이달 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해외 관광객이 입국과 동시에 첫발을 내딛는 방문 코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인천에서의 숙박은 물론 춤과 비트박스의 활기 넘치는 조화로 인기몰이 중인 ‘비밥’ 공연도 코스에 포함할 계획이다.

과거의 역사와 첨단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도시 특성을 갖고 있는 인천. 한류 열풍의 호재로 수많은 콘텐츠의 배경이 된 인천의 구석구석이 관광명소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 영화촬영지로는 인천이 으뜸!

인천은 ‘별그대’ 외에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남한으로 건너온 남과 간첩 원류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배경이 된 정감 넘치는 주택가도 인천이다. 김수현, 손현주를 주연으로 한 이 영화는 십정동 일원에서 촬영했다. 십정동은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됐던 히트작 ‘응답하라 1994’에서도 배경으로도 등장한다. 극중 성나정(고아라)의 현재 집으로 등장한 곳도 인천 송도국제도시다. 또 영화배우 이정재, 황정민, 송지효 등이 출연한 영화 ‘신세계’는 인천공항, 차이나타운, 인천항 등에서 촬영했다.

①	②
③	

① 인천대학교  
② 인천시립박물관  
③ 송도 석산





보석처럼 반짝이는 햇살이 내려쬐다. 가끔은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기운도 있지만 점점 따스해지는 봄별에 자연이 춤을 춘다. 4월은 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로 토마토, 오이, 참외, 봄배추, 시금치 씨를 뿌릴 때다. 양중맛고 연한 새싹들이 풍성한 농작물로 농부를 기쁘게 할 것이다. 도심은 농사를 지을 땅이 많진 않지만 곳곳에 도심농업을 하는 곳이 있어 농부의 귀한 땀방울과 수고를 배울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농작물이 자라는 현장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 새빨간 딸기, 파아란 새싹 도심 농장에 봄이 왔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봄 과일 딸기 체험 현이, 아람농장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한 햇살로 살짝 덥게 느껴질 정도다. 딸기의 달콤한 향내가 진동한다. 벌들은 딸기의 열매를 위해 꽃들 사이를 이리저리 날라 다니는 수고를 자처한다. 비닐하우스 안은 윤기나게 새빨간 딸기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다. 딸기재배는 친환경으로 이뤄지는 양육재배 방식이다. 양육재배는 땅에서 농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내에 딸기 재배 시스템을 갖추고 물과 영양을 함께 탄 물질을 딸기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수경재배’ 방법이다. 딸기는 싱싱하고 당도도 높다.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조그만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뿔뿔하게 잘 익은 딸기를 따다. 농장주는 아이들이 체험하기 전 교육을 한다. 딸기 모종부터, 딸기 꽃이 피고 벌이 수정을 해야 열매가 열리는 과정, 딸기 따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딸기 농장에 온 아이들은 딸기 꽃이 작고 하얗게 생겼으며 딸기가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살면서 땅도 밟기 힘든데 도심 농장에 와서 직접 딸기가 자라는 것도 보고 자연 체험도 할 수 있어 자주 오게 된다고 말한다.

계양구 동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이농장은 3천966㎡(1천200평)에 달하는 땅에 비닐하우스 두 곳에서 딸기체험이 이뤄진다. 농장대표 현선갑씨는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농군이다. 그는 현재 원예학과를 나온 아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현이농장은 매년 9월초에 딸기 모종을 심고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5월 까지 딸기를 수확한다. 딸기가 끝나면 7월 말까지 토마토를 출하한다. 주중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체험을 오고 주말엔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다. 현이농장의 딸기 체험 비용은 성인 1인당 1만원, 어린이도 1만원이다. 농장에서 따고, 실컷 먹고난 후 500g씩 딸기를 담아갈 수 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딸기를 딴 후 딸기잼 체험을 원하면 5천원을 더 내면 된다. 이곳에 설치된 기계에서 직접 딸기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아이들 참여도 가능하다.

문의 : 010-8747-6054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농장도 체험객들의 발길이 잦다. 남동구 토박이로 2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송달영 사장이 정성스레 키워낸 딸기들이다. 아람농장도 딸기가 끝나면 여름부터 토마토를 출하하고, 7월부터는 열대 과일인 백향과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아람농장의 딸기체험은 1인당 1만원. 딸기를 따고 먹어보는 체험 후 작은 팩에 500g씩 담아갈 수 있다.

문의 : 010-4711-4674



### 클래식 음악 듣는 버섯 두리버섯 농촌교육농장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라는 표고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 두리버섯 농촌교육장은 친환경 농법을 통해 품질 좋은 버섯을 재배하는 별난 버섯연구소다. 7년째 계양구 이화동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재경 대표는 귀농하면서 버섯과 인연을 맺었다. 그때부터 장 대표는 버섯연구에 몰두, 전국을 다니며 버섯을 공부했다. 이제는 버섯에 관한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박사가 됐다. 장 대표는 두리버섯 농촌교육농장에 아이들이 버섯체험을 하러 오면 우선 버섯 공부부터 시킨다. 자연생태계에서 버섯의 역할은 무엇인지, 버섯이 식물인지 동물인지, 버섯의 종류, 식용과 약용버섯, 독버섯 구별법, 역사속의 버섯이야기까지 버섯에 관해 세세히 탐구 한 후 체험을 시작한다. 이곳 농장의 표고버섯은 참나무에 원균을 심는 방식이 아닌 각종 영양재가 포함된 톱밥에서 버섯이 자라는 배지재배 방식이다.

노루궁뎅이버섯은 노루의 궁뎅이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루궁뎅이처럼 솜털 보송보송한 하얀 버섯이 예쁘다. 이 버섯은 약용으로 치매, 진망증, 당뇨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루궁뎅이버섯은 사람의 온도에 민감하기에 버섯 샘플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만지고, 느끼며 오감만족을 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노루궁뎅이라는 이름도 신기하지만 처음보는 하얀 버섯이 신기하다는 표정이다.

체험은 버섯 따기부터 버섯을 이용한 요리까지 이어진다. 참여비용은 8천원~2만5천원까지다. 아이들이 딴 버섯은 피클, 피자로 만들어지며 본인들이 만든 요리는 가져간다. 체험엔 2~3시간이 걸린다. 버섯은 특성상 한 번 따면 15일간 쉼 후에 다음 수확을 해야하며 하나의 배지에서 8개월간 버섯을 딸 수 있다. 두리버섯 농장은 농촌진흥청이 전국 48곳에 지정한 품질인증 농장으로 선정되어 있다.

문의 : 010-5269-2371





### 흙, 농사를 체험하는 반디교육농장

반디교육농장엔 책과 숲, 책과 농업이 있다.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놀아야 하고, 농업은 자연의 변화에 가장 밀접한 일이기에 이곳에서는 텃밭교육을 가장 중요시한다. 아이들은 농장체험으로 텃밭 식물들에 대한 생태를 배우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경험한다. 흙을 마음껏 만지며 놀 수 있기에 아이들에게는 자연놀이터나 마찬가지다.

반디교육농장은 7년 전 설립했고 2년 전에 교육농장으로 지정받았다. 이곳에선 봄이 되면 야트막한 산 밑으로 펼쳐진 밭에서 배추, 상추, 시금치, 감자를 심는다. 인기프로그램으로는 정월대보름때 먹는 나물만들기, 쥐불놀이, 부럼까기 등 계절에 맞는 절기체험이다.

아이들은 천연퇴비만들기, 고구마 심기, 텃밭생태 알아보기, 두둑만들기 등을 경험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꼬마농군’은 아이들이 농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 스스로 밭 설계도 하고, 농산물 수확, 판매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다. 1주일에 2~3회씩 4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꼬마농군들에게는 ‘농사일지’라는 노트가 제공되어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싹트고, 절기별로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지 아이들 스스로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꾸밀 수 있다. 아이들이 수확한 농산물은 집에 갖다 먹고도 남을 만큼 양이 많아 나머지는 판매를 한다. 작년엔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모아 탄자니아 도서관 건립에 사용했다. 반디교육농장은 4월엔 감자, 토마토, 고추를 심고, 5월엔 오이를 수확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비는 8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다.

문의 : 010-3735-9090



### 야생화, 나물캐기 무의 까치놀 섬마을

농촌전통테마 마을인 ‘무의 까치놀 섬마을’에서도 농사체험이 가능하다. 씨앗뿌리기, 거름주기, 땅콩, 감자 캐기 등 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들의 이름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야생화와 나물의 모양과 생김새를 익히고, 이 식물들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배운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3월 달래, 돌나물 캐기, 4월 쑥캐기, 산속에서 나는 더덕캐기, 5월엔 봄나물을 캐며 야생화 심기를 진행한다. 아이들이 캔 민들레나 돌나물은 화분에 담아 가져 갈 수 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인기다.

6월~7월은 감자 캐기, 9~10월엔 고구마와 땅콩 캐기를 진행한다. 고구마는 줄기를 따서 말려 나물을 만들고, 땅콩은 넝쿨식물의 생태와 땅콩이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직접 볼 수 있다. 9~11월엔 논두렁, 밭두렁 체험을 진행한다. 논두렁을 걸으면서 후두둑 도망치는 메뚜기를 잡아보는 진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해,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체험은 1년 단위 농사체험도 있고, 단위 프로그램별로도 진행한다. 1년 농사체험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모습, 꽃이 핀 뒤 주변의 잡초 뽑아주기, 수확 체험으로 이뤄진다. 참가비는 1년 체험 2만원, 단위 프로그램은 8천원~1만원. 식사비용은 별도다. 문의 : 070-7759-5422



두근두근. 햇살로 바람으로 향기로, 봄이 밀려온다. 파릇파릇한 채소와  
향기로운 허브, 촉촉하게 물오른 해산물... 아직 가시지 않은 추위로 움츠려  
있던 몸이 입 안 가득 퍼지는 봄기운에 만물이 생동하듯 확 깨어난다.  
인천 호텔의 셰프 4인이 인천의 풍미를 담백 담아 봄을 한상 차렸다.  
풀 향기 바다 향기 한껏 나는, 바라만 봐도 싱그러운 4월의 식탁.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 풀 향기 바다 향기 품은, 셰프가 차린 4월의 식탁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 동서양의 미각을 아우르는, 봄맛

요하킴 크라이셀(Joachim Kreisel) 총주방장은 지난해 12월 웨라톤 인천으로 영입됐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17세 때 요리를 시작한 그는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방콕 등 세계 여러 나라 호텔의 주방을 맡으며 커리어를 쌓았다. 동서양을 아우르며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던 그의 역량은 '웨라톤 인천'의 총주방장을 맡고 있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웨라톤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지금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웨라톤은 세계적인 특급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우드 호텔&리조트의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이 호텔이 추구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결같은 최상의 서비스'는 이곳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선보이는 요리 하나하나에도 섬세하게 스며있다. 중식당 '유에', 일식당 '미야비',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네' 등을 갖춘 웨라톤 인천은, 대회 기간 아시아 각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여러 나라의 색채감이 돋보이는 요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4월의 식탁은 싱그러운 봄 한가운데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세계의 맛을 절묘하게 버무려 완성했다. 특히 꽃게, 주꾸미 등 서해에서 나는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어 인천의 숨결을 가득 불어넣었다. 여기에 갯벌 냄새 진하게 배인 세발나물과 꽃을 얹어 땅의 기운을 보완했다.

웨라톤 인천 [www.sheratonincheon.com](http://www.sheratonincheon.com) 835-1000



웨라톤 인천

요하킴 크라이셀 총주방장



인천의 봄 맛

### 입 안에 착 감기는 '봄' 주꾸미

주꾸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가 가장 맛있다. 찢조름한 향과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씹으면 속살이 터지며 쌀알 같은 알들이 탱글탱글 쏟아진다. 동구 만석동에는 주꾸미 골목이 있다. 철이면 만석부두나 소래포구에서 갓 잡은 주꾸미들이 배에서 내려 이 골목으로 행차하고, 골목은 주꾸미 볶는 냄새로 진동한다.



- 꽃게를 주재료로 서해에서 나는 해산물로 요리한 일본식 요세나베(모듬 냄비)
- 마스카포네(Mascarpone) 치즈를 곁들인 주꾸미 세비체(Cheviche)
- 봄 향기 가득, 입 안에 행복을 불어넣는 전가복





- 송송 썬 야채와 초고추장에 맛깔스럽게 버무린, 밴댕이 회무침
- 접시 가득 봄이 핀, 허브 가든샐러드, 보기만 해도 봄 향기가 훅 끼친다.



인천의 봄 맛

#### 혀끝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봄 '밴댕이'

요즘 제철인 밴댕이는 성질은 파르르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살이 보드랍고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달고 고소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져 나간다. 인천에서 밴댕이가 주로 나는 곳은 강화군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로, 후포항선착장 근처에 횡집 30여 곳이 사이좋게 몰려 있다. 도심에는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옆 문예길 음식거리와 연안부두 해양센터에 밴댕이 전문식당이 모여 있다.

하버파크호텔  
이강덕 총주방장



#### 푸른 물결 따라 봄이 넘실거리다

푸르게 물결치는 바다와 그 위를 힘차게 가로지르는 선박 그리고 하늘 높이 쌓인 컨테이너... 인천항에는 바다의 에너지와 희망찬 미래가 넘실거린다. 하버파크호텔은 인천항이 바로 앞에 있어, 파랗게 달려들 듯 날것 그대로 싱싱한 바다를 누릴 수 있다.

가장 인천적인 풍경 한가운데 있는 이 호텔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아시아 각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인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15층 아래 푸른 바다가 펼쳐진 뷔페 레스토랑에는 인천의 전통적인 요리와 동서양의 미각을 충족시키는 100여 가지 메뉴가 준비돼 있다.

호텔 레스토랑을 책임지는 이강덕 총주방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봄철 생선인 밴댕이를 주재료로 요리를 선보였다. 30여 년을 '바다의 도시' 인천의 셰프로 활동한 그는, 씨푸드에 있어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자랑한다. 이 총주방장은 밴댕이를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새콤달콤 봄맛으로 버무려 식탁 위에 올렸다. 야채를 송송 썰어 초고추장과 맛깔스럽게 버무린 회무침은 겨우내 무더진 입맛을 확 깨운다.

호텔은 이달 초 뷔페 레스토랑의 회 코너에서 2주간 밴댕이 회무침 메뉴를 선보이고, 반응이 좋으면 밴댕이를 회, 구이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선보일 계획이다. 인천 바다의 푸른 에너지가 인천을 찾은 이들의 혀끝에서 마음으로 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하버파크호텔 [www.harborparkhotel.com](http://www.harborparkhotel.com) 770-9500

#### 햇살 따라 바람 따라, 강화로부터 불어온 봄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은 올해 초 문을 연 송도국제도시 1호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진출을 내다보고 있는 국내 순수 브랜드의 호텔 체인이다.

이 호텔을 찾는 이들은 한결같이 송도국제도시의 이국적인 풍광에 감탄한다. 하늘 높이 솟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독특한 외관의 송도컨벤시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인천대교. 호텔 19층에 있는 레스토랑 ‘레벨19’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물길 따라 봄빛이 물든 센트럴파크는 외국의 여느 공원 못지않은 정취를 자아낸다.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의 박장원 총주방장은 강화사자 발약썩을 비롯한 강화 특산물과 서해에서 나는 꽃게를 재료로 가장 인천적인 봄 요리를 완성했다. 땅과 바다의 기운을 흠뻑 빨아들인 이들 재료는 건강에도 좋지만 풍미를 돋우는 데도 그만이다.

그는 강화약썩의 기운이 스민 봄철 보양식을 선보이고, 쌉싸래한 강화순무와 상큼한 오렌지 샐러드로 접시 위에 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메인 디쉬로 강화인삼을 넣은 한방소스를 곁들인 양갈비 스테이크와 윤기 자르르 흐르는 강화섬쌀로 만든 꽃게살 리조토를 올려 봄 식탁을 완성했다. 생명이 움트는 땅과 바다를 품은 인천의 맛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 끝에 차린 4월의 식탁이다.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www.orakaihotels.com](http://www.orakaihotels.com) 210-7000



인천의 봄 맛

#### 순수의 땅, 맑은 물이 키운 '강화 특산물'

생김새가 사자발 같아서 강화사자발약썩이라고도 부르는 강화약썩은, 일반적인 썩보다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향이 깊다. 강화순무는 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독특한 맛으로 겨우내 무더진 입맛을 일깨운다. 강화섬쌀은 유기물이 풍부한 강화 땅에서 해풍을 맞으며 자라, 밥을 지으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진 감촉과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박장원 총주방장

- 강화순무의 쌉싸래함과 오렌지의 상큼함이 겨우내 무더진 입맛을 깨우는, 오렌지&강화순무 샐러드
- 봄철 보양식인 봄 도다리 썩국을 서양식으로 재해석한, 강화약썩 크림스프
- 강화인삼을 넣은 한방소스를 곁들인 양갈비 스테이크와 꽃게살 리조토







- 구기자 드레싱을 곁들인 서해안 갯가재와 두릅 샐러드
- 매콤한 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인 꽃게 미니 샌드위치와 꽃게 차우더
- 그린 아스파라거스와 샤프란 홀렌다이즈 소스를 곁들인 적 도미구이



### 세계 하늘 아래, 서해 바다의 맛

영종도의 품에 안긴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에서 3분 거리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고 인천 시내, 경제자유구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호텔은 또 유일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호텔’로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특급호텔다운 면모가 여러모로 돋보인다. 19개의 미팅룸과 비디오 회의, 5개국 동시통역 등이 가능한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이벤트 전문가들을 대기시켜 손님맛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기 전인 7월, 현재의 ‘이스트 타워’에 대규모 연회장을 갖춘 ‘웨스트 타워’를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  
전관수 부총주방장

이 호텔은 대회 기간 인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머무는 호텔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레스토랑 8’은 동서양의 여덟 가지 다채로운 맛을 선보이면서도, 각 요리 전문가들이 고유의 맛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정성껏 조리해 맛 그 이상의 깊이가 느껴진다. 전관수 부총주방장은 오랜 경험과 열정으로 레스토랑 8을 비롯한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조리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2009년 이 호텔에 합류하기 전, 캐나다에 있는 ‘파크 하얏트 토론토’에서 레스토랑 총괄 주방장을 지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정통 이탈리아 요리 실력을 쌓았으며 한식, 중식, 태국 등 세계 음식에도 조예가 깊다.

전 부총주방장은 재료 본연의 맛은 온전히 살리면서도 새로움을 더한 메뉴로 식탁 가득 봄을 채웠다. 인천바다에서 나는 꽃게로 만든 샌드위치와 차우더는 봄처럼 산뜻하면서도 바다의 풍미는 그윽하다. 갯가재와 두릅의 어우러짐에 구기자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는 알싸하게 특독, 미각을 일깨우고 나른한 봄철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 incheon.regency.hyatt.kr 745-1234



인천의 봄 맛

#### 봄결처럼 보드레한 속살 ‘꽃게’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꽃게는 4월에 첫선을 보여 10월 말까지 잡히는 데 그 가운데 산란기인 4월에서 6월, 알을 낳기 전에 잡은 암게가 가장 실하고 맛이 좋다. 저장기술이 발달해 요즘은 어느 때라도 꽃게를 맛볼 수 있지만 제철의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꽃게는 찜으로 탕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어도 맛이 깊고 풍부하다. 하지만 조개와 다시마 등으로 육수를 내고 속이 꽉 찬 꽃게에 마늘, 대파를 넣고 팔팔 끓인 꽃게탕을 따라올 것은 없다. 그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을 한 그릇 비우면 가슴 속까지 뜨끈한 기운이 밀려온다.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진 게의 보드레한 속살을 쭉 빼내 먹는 재미도 그만이다.



#### 전국 생산량 40%, 꽃게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인천꽃게는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인천 전체 수산물 생산량 2만8천 t 가운데 35.6%를 차지한다.



올해는 전국 1위, 꽃게를 1만1천 t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시는 꽃게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꽃게 가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꽃게산업의 체계적 자원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웅진군을 대상으로 올해 유통 및 가공물류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83억원을 투입해 냉동·냉장시설, 공동작업장, 가공시설 등 유통 및 가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웅진군 영흥면에 지상 3층 연면적 355.50㎡에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분말 조미료 등 꽃게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꽃게가공센터를 건립했다.

시는 특히 인천꽃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 등과 인천꽃게의 브랜드화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인 ‘꽃게 지역연구산업육성(RI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RIS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7년 2월까지 꽃게 신기술·신제품 개발, 유통시설 조성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 수산자원연구소 883-0417  
인천 꽃게 RIS사업단 070-4227-8775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늘 높이 솟은, 그 푸른 기상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독야청청(獨也靑靑),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휘돌아 굽이치며 창공으로 파고드는 등치와 가지가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이 넘치고, 섬세하게 표현된 솔잎 하나 하나에는 맑고 강건한 기운이 팽팽하게 서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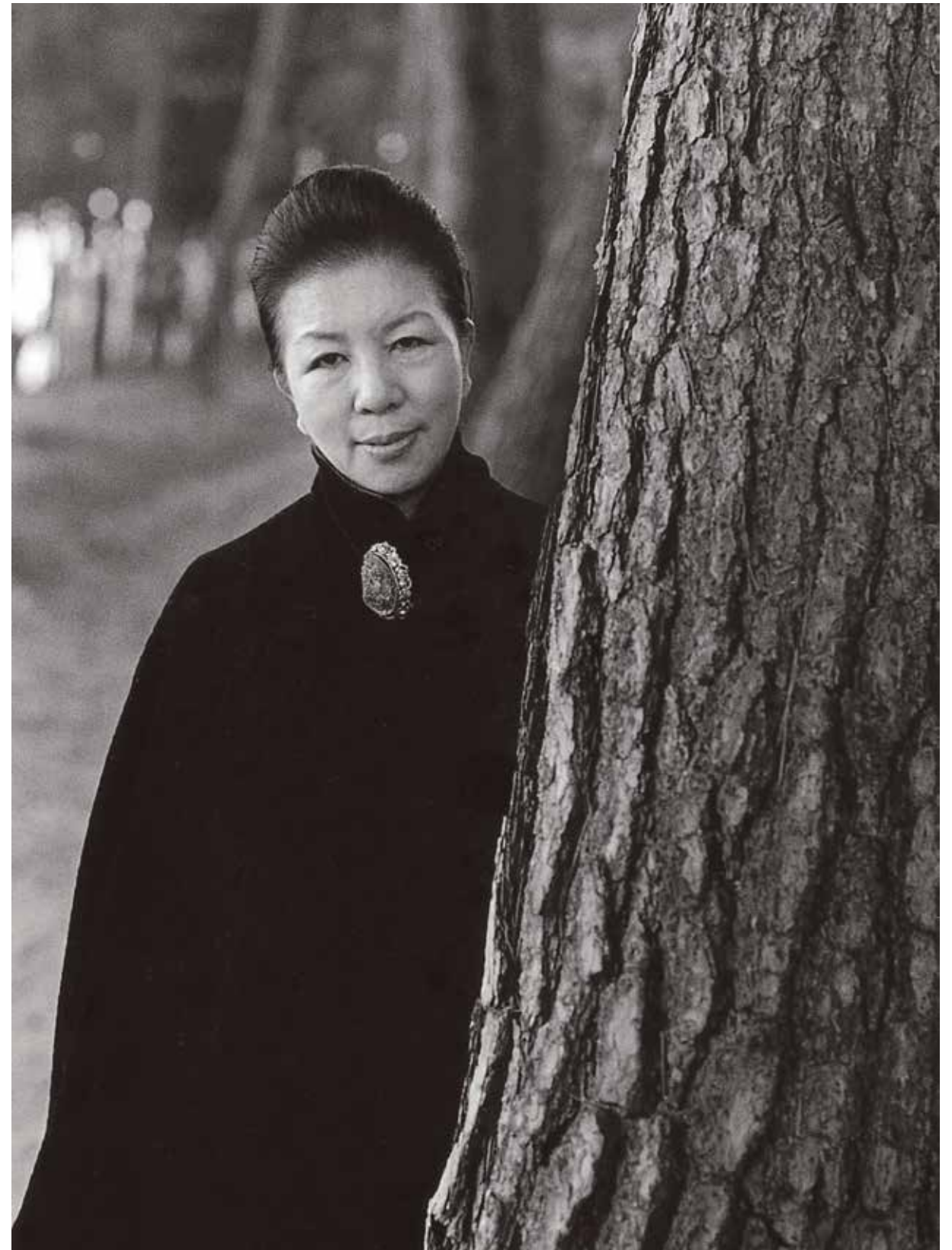
여송(如松) 서복례(60) 선생은 일필휘지(一筆揮之), 대범한 화풍을 과시한다. 그림만 봐서는 여성의 작품이라고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거침없고 힘이 넘친다. 문득 그가 걸어 온 궤적이 궁금해진다.

여송은 꽤 오랫동안 안에서 솟아나오는 끼를 감추고 살았지만, 결국 그 열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붓을 들었다. 타고난 기질과 닮아서일까, 운명처럼 소나무에 이끌렸다. 그러다 한국 동양화의 대가 매정(梅亭) 민경찬 화백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림에 대한 몰두가 깊어졌다. 소나무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화단에 이름을 알리고,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활발히 전시회를 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지도교수로 활동하며 명망을 쌓았다. 오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그의 작품이 아시아 귀빈들이 머무는 주경기장 VIP룸을 장식하며 한국의 미를 알린다.

우리나라에 소나무를 그리는 화가는 많다. 하지만 솔잎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표현하는 그의 기법은 유일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거대한 화선지 앞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펼치는 그의 퍼포먼스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다는 평가다. 이에 동양화의 본고장인 중국의 길림예술대학교에서 그 화법에 감명 받아 여송을 외국인 최초의 종신교수로 초빙하기도 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늘 깨끗한 소나무의 강인함이 좋아 그림을 그립니다.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우리 겨레와 꼭 닮았습니다. 그저 잘생긴 소나무가 아닌 한민족의 기상이 담겨 바라보는 이들의 삶과 공명(共鳴)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그리고 싶습니다.”

30여 년 동안 즐기차게 소나무만을 고집해 왔다. 소나무가 자아내는 개결한 기운, 창공으로 뻗어가는 결연함을 담기 위해, 붓을 들었던 매순간 혼신의 힘을 불어넣었다. 여송(如松) 서복례. 그에게 있어 소나무는 담고 싶은 한민족의 모습이자 바로 자기 자신과 다름 아니다.



청량산 기슭 소나무 숲에서



## 어르신들을 모시는, 진실한 마음

글 장미숙 시 사회적경제과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이러한 노력이 어르신들에게 살뜰한 보살핌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곳, 바로 (주)청솔노인요양센터(인천 남동구 간석동)이다.

(주)청솔노인요양센터는 주요사업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 가사간병,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곳은 사회복지시설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이 모여서 2008년 8월 설립한 자활공동체 ‘정다운노인요양센터 청솔의 집’으로 출발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모여서 만든 일터였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버텨

오면서 주위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나누려는 마음이 센터의 성장동력이 되었다. 센터는 지난 2008년 요양보호사 10명으로 시작해 현재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만큼 고객들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잘 돌볼 수 있었다.

센터는 설립 초기에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역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요양보호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동종 어느 업체보다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수발서비스가 필요하나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계층에게는 긴급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청솔노인요양센터 김준모 대표는 “어르신들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다. 그 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며,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기 좋은 곳, 잘하는 곳으로 알려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청솔노인요양센터는 처음 가난한 이들의 착한 마음을 모아서 시작했듯이, 앞으로도 재가서비스 영역에서 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돌봄을 통한 나눔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동지를 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GCF가 지구 기후변화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지구에 초록빛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맑고 밝게 만드는 길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 개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3년 말 기준 대상 차량 65만대 가운데 3만2천690대(5%)가 가입했다. 앞으로도 ‘회색빛 도심에 초록빛 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마음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함께해요** 신청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량 소유자로,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 및 법정공휴일 무관) 이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구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기획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에서 신청한다. 전자태그를 수령해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이 쉬는 요일을 지킨다.

**풍성한 혜택이 가득** 자동차세(5%)와 공영주차장 요금(30~50%), 교통유발부담금(30%),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 O!Ling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 감면과 스마트태그 가입 부착 시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을 편리하게 하고, 공영주차장요금·혼잡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서울시·경기도와 연계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세를 5%에서 10%로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리하여 올해 승용차선택요일제 6만5천대(10%) 참여와 이로 인한 연간 유류비 185억원, 온실가스 37억원 등 총 222억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63





## ‘땡사’들의 가혹한 선행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고자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 인류애에 입각해 혼혈아 취학에 안전책

외국인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는 그 수효가 적지 않은 바 특히 이들의 교육문제는 지극히 어렵고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인천에도 혼혈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또는 수용소가 적지 않으리라 추측되며 또한 방금 국민학교의 개학기에 이르러서 혼혈아동을 가진 가정이나 수용소에서는 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마음을 씌고 있을 것임에 비추어 인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언급하고 있다. 즉 이들 혼혈아는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의당히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서슴치 말고 취학토록 당국에 신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당국에서도 고상한 인류애에 입각한 교육방침으로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할 것은 물론 그 외의 학생들이 혼혈아라는 까닭으로 희롱을 하는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까다로운 교육상 제 문제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잘 상의하여 특별한 지도를 베풀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의 선도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1953년 4월 8일자)

### ‘땡사’들의 가혹한 선물, 피난민에 의류 등 기탁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이 사회에서 걸핏하면 차가운 눈총에 이지러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땡사(땡서)’들이 오히려 극빈에 허덕이는 동포를 사랑하여 따뜻한 선물을 보냄으로써 향간에 미담을 던지고 있다. 즉 지난 4월 5일 인천 시내 ‘땡사’들로 조직되어 있는 ‘크로버’ 칠우회에서는 시내 송학동에 있는 제1공회당 수용소의 피난민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회원들의 거출된 의류 104점, 새우젓 4독, 맥분 1포대 기타 물품을 시 사회과에 기탁하여 피난민 당사자들은 물론 보는 사람들을 감격케 하였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기탁을 받은 즉시로 수용소 피난민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1953년 4월 22일자)

### 시민 위생에 서광, 공동변소 15개소 설치

참담한 전쟁 피해로 말미암아 도시환경 위생상 중요 시설인 공동변소의 파괴가 우심한 반면에 도시의 인구밀도는 날로 그 도를 가하여 거리에는 무질서한 용변으로 도처마다 불결한 상태를 나타나게 됨은 도시 미관상 방지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동변소 설치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바 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시내 중요 장소 15개소에다 공동변소 설치안을 세우고 이에 대한 자재와 경비 등을 도 당국에 신청한 바 있는데 금번 CAC 당국과 협의를 보아 공동변소 15개소 설치에 요하는 자재 일체와 1개소 당 경비 3만 5천환의 보조를 받기로 확정을 보았다하며 자재가 도착하는 대로 불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에는 시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동변소 설치장소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설치장소를 선정하였다고 하는 바 금번 이 공동변소가 완성되면 시가는 명랑한 거리로 변할 것이며 시민 위생상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는 자못 크다. <설치 장소> 선화동(수인역 시장), 금곡동(송림초등학교 후문입구), 도원동(공설운동장 내), 신포시장, 송현동(중앙시장 내 3개소), 송월동(현 가축시장), 경기어련구내, 만석동(피난민구호소 근처), 하인천역, 사동19번지(피난민수용소), 만석동(조선기계제작소 후면), 만석동 성광기술학교 앞(피난민수용소), 부평 1개소.

(1954년 3월 24일자)

### 마약환자 수용소, 25일부터 중독자 수용 시작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일생을 타락의 길에서 헤매이는 불우한 아편 중독자들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무료진료소 개설을 추진하여 오던 바 드디어 지난 25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개소되었다. 총공사비 40여 만환을 들여 개수된 동 수용소는 인천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아편 중

독자를 수용하여 무료 진료와 침식의 일체까지 제공하게 되었으니 당국에 의해 적발된 중독자 외에 자기의 재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자진 입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런데 개소된 첫날에는 제 1호로서 중국 여인의 중독자가 수용되어 가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하오에는 김정렬 시장, 이명호 시의회의장이 동 수용소의 상황을 시찰하였다고 한다. (1955년 3월 28일자)



1970년대 초 식목일을 맞아 공무원과 학생들이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고 있다.(자료사진)

### 5천 그루 식수 수봉 산록에

한 그루의 나무를 찍어내느니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한 붉은 산에 푸른 옷을 입히자는 인천시 주최 제 11회 식목 기념행사가 청명과 한식과 식목일을 겸한 지난 5일 상오 10시 수봉사 정원에서 김정렬 시장, 박성래 부시장, 이명호 시의회의장과 시청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수봉산 기슭에 라기다송 1천 그루, 해송 2천 그루, 오리나무 1천 그루, 싸리 1천 그루, 도합 5천 그루의 묘목을 각각 식재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공설운동장 개수에 수반하여 제방 관람석 주변에 버드나무(10년생) 153주와 은행나무(3년생) 200주를 식재하였다. (1956년 4월 11일자)



신문은 오늘에는 뉴스이지만 내일이면 역사다. 인천공보는 비록 시에서 발행한 주간신문이었지만 1950년대 당시 인천시의 정책과 지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역사책’이다. 당시 시민들은 인천공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았고 직접 투고를 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5년 넘게 ‘인천공보’의 데스크 업무를 맡았던 이준규 씨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여러 해 ‘굿모닝인천’의 애독자였다. 잠시 차 한잔을 마시며 당시 발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 “시민들은 ‘활자’에 목말라 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굿모닝 인천’ 편집장이십니까? 저는… 인천공보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본지는 올 2월호부터 ‘인천공보(仁川公報)’로 본 60년 전 인천이란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1950년대 인천시 정책은 물론 지역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코너다. ‘인천공보’는 아직 전선(戰線)의 포성이 멈추지 않았던 1953년 1월 10일 당시 표양문 인천시장을 발행인으로 부시장 최병환을 편집인으로 해서 창간한 인천시 기관지였다. 실제적인 편집업무는 문인이자 언론인이었던 최성연 선생이 맡았다. 그는 후에 ‘양관역정’이란 책을 발간한 향토사학자이기도 하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제작되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 외에도 정보에 목말라했던 시민들에게 일반기사를 제공하고 문예작품 등을 실으면서 매호 발간될 때 마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창간호에 실린 시장의

창간사 일부를 보자.

**‘인천공보를 간행함은 시 행정의 내용을 공표하고 전달하는 한편 시민들의 중성(衆聲)과 여망을 취급할 것은 물론이요, 시의회의 의사 기록과 의원 제씨의 활동상황이며 그들의 의견을 발표하여 시민제위가 잘 알도록 할 것이며 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상호간의 지식을 계몽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도 또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보 발간에 앞서 8·15 광복 후 미군정 때부터 정부수립 시까지 ‘주간인천’을 약 100호 가깝게 발행한 적이 있다. 이 주간인천은 후에 고일(高逸)이 주필로 활동한 ‘주간인천’과 제호는 같지만 발행주체는 다르다. 지난달 18일 오후, 전화의 주인공이 시청 굿모닝인천 사무실을 찾아왔다. 중절모를 쓴 건강한 모습의 이준규(李俊珪·83) 어르신이 밝은 웃음을 머금고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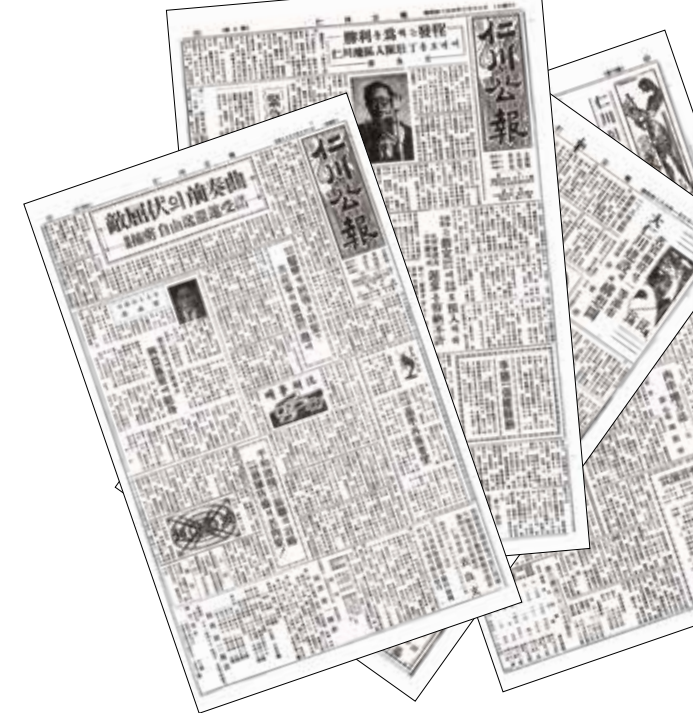
“‘굿모닝인천’을 읽다가 ‘인천공보’ 제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든 나조차 이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그 신문의 기사를 다시 보게 돼 감개무량했습니다.” 이 선생은 창간 후 최성연, 박치원 편집장에 이어서 세 번째 데스크를 맡았다. 1961년 인천공보가 폐간될 때 마지막 호 편집을 마친 장본인이다. 1931년생인 그는 서울에 살다가 6·25 전쟁 후 인천으로 건너와 정착했다.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김은하 전 국회의장이 인천지사장으로 있던 동양통신의 편집기자로 일하면서부터다. 그는 1954년 12월 10일부터 인천공보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된다.

‘그때 신문을 제작하던 형편이 어땠습니까?’라는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갖가지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창간되자마자 야당 의원이 주류였던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태클’이 들어왔다. “성화가 대단했어요. 시장 사진 크게 게재하거나 제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회기 때마다 예산 삭감 운운하고…”

얼마나 압박이 심했으면 ‘인천공보’ 편집팀이 속한 시청 공보계에 카메라 한 대가 없을 정도였다. 수도과에 있는 사진기를 사정하다시피 해서 빌려 쓰거나 수도과 기사를 모셔다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사진을 게재하려면 동판을 떠야했는데 인천에는 그 시설이 없었다. 결국 사진 한 장 때문에 아침 일찍 경인선에 몸을 싣고 서울에서 작업해 가져와야 했다.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비록 기관지였지만 매주 3천부씩 발행하는 인천공보의 매체 파워는 대단했다. 당시 시중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1천부 가량 발행할 때였다. 인쇄는 외주 업체에 맡겼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았다. 문선공이 활자를 일일이 골라서 조판을 했다. 간혹 없는 글자가 나오면 기사 내용을 바꾸거나 꼭 써야한다면 서울 가서 급히 활자를 사와야 했다. 급하면 도장집에 가서 한자 목각을 파서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목도 맘대로 붙이지 못했다.

인쇄는 로울러를 밀어서 했고 잘 밀리라고 로울러에 아교와 설탕을 입혀 사용하곤 했는데 밤새 쥐가 그것을 갉아 먹어 발간 시간을 맞추느라 발을 동동 구르던 때도 있었다. 사람도 쥐도 모두 배고팠던 시절이었다. 신문 제작 예산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나중에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다 떠나고 홀로 인천공보를 발간했다.

1961년 5·16이 일어나면서 ‘인천공보’는 폐간된다. 곧 ‘재건인천’이란 제호로 다시 복간이 되지만 군복무 미필자였던 이 선생은 옷을 벗게 된다. 1년이 지난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공직의 길을 걷게 된다. 동사무장으로 시작해 시청 계장, 구청 과장을 거쳐 1992년 인천시민회관 관장으로 정년퇴임한다. 현재 이준규 선생은 수필가와 수백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국판 라스베가스’ 생긴다

영종도가 카지노를 열고 국내 관광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18일, 영종도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발표함에 따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공식 확정되었다. 이번 영종 미단시티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부지는 총면적 8만9천171㎡(2만7천평)으로 토지매각가격은 약 1천500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2조 3천억원 규모다. 우선 1단계로 총 7천500억원을 투입해 카지노 시설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2018년까지 개발하고, 2단계로 추진하는 호텔,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은 2022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바꿀 이번 카지노 유치로 미단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은 지난 2013년 1월 카지노사업자인 리포&시저스 측과 토지매매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토지매매계약 본계약을 이루게 되었다. 영종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가 성공함에 따라 복합리조트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약 4천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및 3만5천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복합리조트 운영으로 인해 해외 관광객이 110만명 이상 증가, 연 1조 5천억원의 관광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단시티 공모구역 사업을 시행 중인 미단시티개발(주)은 2015년 초까지 카지노부지 토지대금으로 1천억원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 계약 체결된 카지노 주변 토지(계약액 약 1천800억원)의 계약 정상이행으로 연내 3천억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단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공사도 토지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리스크가 크게 저감되고 투자유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공사가 추진중인 관광사업, MICE사업과 복합리조트를 연계하여 복합리조트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도시공사의 관광사업 활성화 및 인천관광산업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사는 향후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를 기반으로, 숙박·레저·상업 등 카지노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신규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카지노 유치 뿐 아니

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등 미단시티의 투자 장점을 살려 자금력 있는 선도투자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입성을 계기로 영종도를 레저·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한 영종도 무비자제도 도입과 도착비자 확대 시행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을 현행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에서 영종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콘도, 호텔, 펜션, 별장에서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투자 기준 금액 현실화도 촉구했다.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 기준 금액은 7억원인 반면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은 기준 금액이 5억원이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세계 인센티브 대상에 국내 기업도 포함하고, 기존 혜택 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업종과 기간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 미단시티 ☎ 745-5414



### 카셰어링 주차장·차량 확대

우리는 영종지역에도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주차장을 130곳으로 늘리는 등 카셰어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92곳인 카셰어링 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130곳, 200대인 차량대수는 300대로 늘리기로 했다. 관내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차장수와 차량대수를 확대하기로 하고, 1차 협의를 끝낸 경제자유구역청, 인재개발원, 남구청에 차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카셰어링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중 인천시 카셰어링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이용자 중심의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에서도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구 영종출장소 및 중산지소에 각 2대, 영종힐스테이트 아파트 1대, 운서역 주차장 4대를 배치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셰어링 회원은 지난 2월 말 현재 7천168명으로, 총 5천216명이 이용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87.1%, 이용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가 전체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 440-3857



### 한류문화축제 10월 송도서 개최

오는 10월 3~4일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한류문화축제가 열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브릿지호텔에서 ㈜이노월드와이드와 2014 한류문화축제(The K Festival)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축제는 한류의 중심인 K-Pop 콘서트는 물론 국내에서는 최초로 패션, 음식, 뷰티, 영화, IT 등 한류 콘텐츠를 총망라해서 선보이는 아웃도어형 페스티벌이 될 예정이다. 공사는 축제 개최시기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에 맞추므로써 아시아경기대회와 축제 관람객 유치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 260-5343



### 저소득층에 전세임대 530가구 공급

우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53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존 주택 전세 임주를 지원, 이들이 현 생활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대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는 전세자금으로 가구당 7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입주자는 2년 단위로 거주하고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공급 가구를 130가구 더 늘렸으며,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397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을 검증한 뒤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 440-4743

### ‘누구나 집’, 4월 분양·임대공급

우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민간 복합형 임대·분양사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7일 관내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지인 도화구역 내에 4월 중 아파트 51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및 임대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 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무주택, 청약저축 보유 등 신청 자격이 필요 없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거주형편과 지역 사정에 맞는 입주자들의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도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케터링, 육아, 통신 등 입주민들간 협동조합과 카셰어링, 지식공유단지 등 공유경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입하는 협력적 소비센터(NCCC) 계획을 입주 시점에 맞춰 구체화 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 260-5204

### 위기노인 자살예방 및 희망프로젝트 추진

우리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노인 자살예방 및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자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인 자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노인상담 및 자살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육을 실시해 전문적인 노인상담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을 실시해 위기노인에 대한 발굴 및 개입으로 자살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침이다. 또 올해 남동구와 부평구를 시작으로 노인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살 고위험군 분류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자살 전문상담센터인 ‘노인생명희망센터’를 지난달 26일부터 광역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 440-2825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올해 하반기 개최 확정

우리는 올 하반기에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전국체전 개최 도시가 다음해 전국장애인체전을 열어야 하는 관례에 따라 올해 전국 장애인체전을 개최해야 하지만 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를 앞두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이용시기 부적절 등으로 개최 반납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시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통합과 화합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시는 전국장애인체전을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료후 개최해 경기장 편익시설, 자원봉사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된 공무원 잉여인력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종목 일부 조정, 타 시·도 경기장 활용, 개·폐회식과 성화봉송 등 주요 행사 축소 등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해 대회를 준비한다. 또 국비 추가 지원 요청과 인천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대회 개최 추진 인력은 이미 구성된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기획단'(T/F)을 이용하기로 했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4083



### 사회적기업 복합지원 공간 대상으로 선정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4년도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조성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인천시가 제안한 JST(제물포스마트타운)내 사회적기업 복합지원 공간 조성과 예술회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홍보관 레노베이션 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것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지원금 5억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이를 JST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내에 사회적기업 등 유관기관 사무공간을 비롯해 창업상담실, 교육실, 스마트워크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 440-4913

### ‘수돗물 안심 확인제’운영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수돗물 수용가를 대상으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수질연구소 직원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해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고 올바른 수돗물 음용방법 등을 안내해 준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전 항목에 대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원인규명 및 수질개선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환경부 물 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 720-2144



### 송도·영종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우리는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버스 노선을 신설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노선인 91번, 92번을 1개 노선으로 통합하고 국제업무지구역~테크노파크역~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잇는 1개 노선을 신설한다. 중형버스 8대를 신설 노선에 투입해 12~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와 동춘역 구간 노선은 버스 5대를 투입해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와 동춘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감차되면서 지난달부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됐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52~3



### 남동구에 ‘나무장터’개설

본격적인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인천산림조합은 나무장터를 남동구 남촌로 57(남촌동 231-1번지)에 새롭게 이전 개장했다.

나무시장은 5월 30일까지 휴일없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전국의 산림조합원이 생산한 양질의 나무를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고 나무장터에서는 일반 시장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다. 또 임업기술 지도원을 배치하여 나무의 선택과 심는 방법 등의 기술지도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 산림조합 나무장터 ☎ 462-0110



### 제213차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10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협의해 옴에 따라 개최되었다.

지난달 10일부터 개최된 제214회 임시회는 당초 12일로 계획된 일정을 2일 단축한 3월 19일까지 10일간 개최됐으며, 인천시와 시 교육청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구재웅 운영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6대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으며,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건은 원안가결했다.

###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5건 선정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1일 제4회 의정모니터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1, 2월 중 모니터단이 제안한 23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의정모니터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시 일상생활의 장애와 금단현상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단기적인 캠페인성 교육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가정 ‘예방 및 중독치료 센터’를 개설·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속적인 예방교육 및 치료로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 의원연구단체 연구발표 결과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발표 결과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활동을 펼친 5개 의원의 연구단체가 참여했으며 인천관

광활성화연구회 대표의원인 박승희 의원을 비롯하여 녹색거버넌스 연구모임, 사회책임조달연구회, 시민생활밀착사업연구포럼, 협동조합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인천시 집행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에 추진해온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 구매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의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과 현안사항을 수렴하고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9일 시행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성만 의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김기홍, 박순남, 신동수, 제갈원영 의원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연합회 정종철 회장 등이 참여했다.



###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 촉구 결의안

인천시의회의는 지난달 19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 촉구 결의안을 광역의회 최초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보험공단이 흡연과 질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다고 한다”며 “인천에서도 흡연으로 매년 2천766억원 이상의 의료비와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험공단의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한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회,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KT&G, 인천시에 결의문을 보낼 계획이다.

###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안’을 채택했다.

먼저, 업무 보고는 그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특위에서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인천시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위 차원에서 마련했다.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놓치면 안 될 우리 아이 책	조월례 외	고래가숨쉬는 도서관	어린이 책 전문가 28명이 쓴 서평집!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피아 뎀블링	책읽는수요일	관계 중독 세상에서 나만의 생활방식을 지키며 조용하게 사는 법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가지 포인트	게리 채프먼	생명의말씀사	사랑하는 연인을 이상적인 부부로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조언을 담은 책!
처음 20시간의 법칙	조시 카우프만	알키	무엇이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완벽하게 배운다!
강통 걷어차기	김동은, 조태진	쌤앤파커스	한국 경제의 디스토피아
친절한 생물학	후쿠오카 신이치	은행나무	소소한 고민을 통해 생물의 신비함을 찾는 여행
언니도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어	윤정은	팬덤북스	하고는 싶은데 결혼이 너무 두려운 싱글들을 위한 따뜻한 독설
그림을 본다는 것	케네스 클라크	엑스오	위대한 명작을 제대로 감상하는 '정통'의 방법!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임진표	다락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습관을 훑쳐라!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림	이숲	어른을 위한 그림동화
살아있는 뜨거움	김미경	21세기북스	하루하루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다!
세계사 7대 사건을 보다	정호일, 박찬영	리베르스쿨	세상을 뒤바꾼 세계사 7대 코드 그 비밀의 문을 열다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김춘석

1939년 인천시 화수동 출생

연세대학교 국문과 졸업

1965년 '현대문학'에 시 '바다와 정부(情婦)', '역류(逆流)'(65)등이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여섯시'의 동인이며,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대표작으로 '투게도', '한밤쯤 깨어', '산불', '잠 안 오는 밤', '송어', '생명의 노래', '동물원', '아무 것도 아닌' 등이 있고, 1971년 시집 '한밤쯤 깨어'(宣明文化社)를 출간했다.

모닝커피 한잔

## 인천은 '파랑색'

## 희망, 젊음, 가능성의 도시다

글 신현수 시인 ·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지난 5년 동안 쓴 줄시들을 모아 '인천에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여섯 번째 시집을 최근에 펴냈다. 시집 출간을 기념해서 지난 2월 18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조출한 콘서트도 열었다. 기념회를 준비하는 데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의 열성 회원 한 분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분들에게 드레스코드를 지정하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약간 남우세스러운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다가, 하도 강권을 해서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다. 결국은 그분의 제안 덕분에 출판기념 콘서트가 재미있게 진행됐다.

그가 내게 제안한 색깔은 파랑색이었다. 인천은 바다의 도시이고 항구의 도시이고 하늘길이 열려 있는 공항의 도시이니, 인천의 상징색은 당연히 파랑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하면 전 세계인들 모두 빨간색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는 색깔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색깔마케팅이 중요한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천의 상징색을 파랑색으로 하자는 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혹시나 해서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잘못 찾아서 그런 건지, 인천의 상징색 같은 건 없는 것 같았다.

인천시의 상징색을 파랑색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천의 상징색을 조례로 제정해 가능한 인천시의 모든 상징물들을 파랑색 계통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인천시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에서 넥타이와 스카프 등 드레스 코드를 파랑색으로 지정하자. 파랑색은 희망, 젊음을 상징한다. 인천은 파랑색처럼 희망의 도시이고 가능성의 도시다. 인천은 누가 뭐래도 바다와 항구와 공항의 도시다. 그런데도 인천은 그동안 한사코 서울만 바라보며 바다를 등지고 살아왔다. 인구 구성비가 다양한 인천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인천의 다양한 인구 구성비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기회다. 더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모두 인천이 아닌가. 나부터 월말에 열리는 운영이사회에서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의 로고 색깔부터 파랑색 계통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야겠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네 가지가 관철아야 한다. 첫째, 자신의 품질이 관철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도 관철다고 말해줘야 한다. 셋째, 관철다고 말을 하는 사람 역시 관철아야 한다. 넷째, 관철은 사람의 건강 역시 관철아야 한다. - 왕리천 (허난대 교수)

사마천의 '사기' 연구의 권위자인 중국의 왕리천 허난대 교수가 한 말이다. 우선 자신의 품질이 관철아야 하고, 다른 사람도 관철다고 말해줘야 하며, 또한 관철다고 말을 하는 사람 역시 관철아야 하며, 관철은 사람의 건강 역시 관철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면서 한번쯤은 이 말을 꼭 되새겨보기 바란다. 나는 남 앞에 나설 만큼 관철은 사람인지,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관철은 사람인지, 자신의 건강은 관철은지를.







### 인문학강좌 ‘현대미술 읽기’

컴팩스마트시티는 상반기 인문학강좌로 ‘현대미술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술가에 대한 정의부터 예술내용의 변화과정, 추상예술, 현대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강이다.

일시 : 4월 매주 목요일 15:00~17:00, 총 4회

강사 : 조이한(인하대 강사)

모집인원 : 회당 성인 100명(사전신청: 전화, 이메일, SNS)

장소 : 3층 영상관

강좌주제

일 정	주 제
4월 3일	1강. 예술가란 무엇인가?
4월 10일	2강. 눈의 순수함
4월 17일	3강. 정신의 순수함
4월 24일	4강. 순수함을 벗어던지고

페이스북 www.facebook.com/compactsmartcity

트위터 @compact6018

문의 : 850-6016, 이메일 cscity@naver.com

### 다양성영화상영 프로젝트 ‘별씨네’

컴팩스마트시티가 4월을 맞아 인천영상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다양성 영화 상영 프로젝트는 ‘별씨네’다. 주제는 ‘꿈, 도전하라!’로 첫째주-다큐멘터리영화, 둘째주-고전영화, 셋째주 도시영화 상영이다.

일시 : 매주 토요일(넷째주 제외) 14:00~

장소 : 3층 영상관

관람인원 : 선착순 100명(무료)

문의 : 850-6018

일 정	영 화	줄거리	등 급
4월 5일	안녕?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과 안산 다문화어린이 24명이 함께 도전한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전체
4월 12일	시네마천국	유명 영화감독이 된 토토와 낡은 마을극장 영사기사 알프레도와의 애절한 우정을 그린 불멸의 명작	전체
4월 19일	원스	아일랜드 더블린 거리를 배경으로 한 감미로운 음악영화	전체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3기 기자단 모집

인천시라면 내가 자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인천시의 구석구석 생생한 이야기를 취재할 'I-View'기자를 모집한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인천과 함께하자.

모집대상 : 인천시와 기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모집기간 : 4월 10일(월)~30일(수)

모집분야 : 취재기자(사진 및 동영상 촬영 포함)

선발기준 : 글쓰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인천시에 애정이 있고, 인천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자유기사)

2차 면접

활동기간 : 2014년 5월~2015년 4월(1년간) ※활동우수자는 1년 재위촉

활동내용

• 월2회 이상 인터넷신문 취재기사 작성

• 인천시 행사 참여 및 취재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각 경기장 파견 취재

• SNS 홍보활동

활동혜택

• 인터넷신문 기사 채택시 원고료 지급

• 1년간의 교육 및 활동에 따른 수료증 수여

• 활동우수기자 시상(시장상 추천)

• 인천시 산하기관 견학 및 문화·공연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접수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은 후,

이력서(개인 블로그나 SNS주소 첨부),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자유기사 1건을 메일로

신청(media\_ic@naver.com)

문의 : 시 대변인실 미디어팀 ☎ 440-8304

### 4월 과학의 달 기념 ‘로봇랜드테마존’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사람 크기의 로봇배우 6종이 펼치는 특별한 과학공연 ‘로봇랜드의 전설’과 로봇체험, 전시, 워크숍 등 로봇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많은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바란다.

운영기간 : 4월 1일(화)~5월 11일(일)

프로그램 구성

• 공연 ‘로봇랜드의 전설’과 멘토링 토크(사전예약 필수, 유료)

• 로봇아바타 및 조각퍼즐 체험(무료)

• 로봇공연 제작 관련 과학전시(무료)

• 로봇교구조립 및 체험 워크숍(주말에 한정, 사전예약 필수, 유료)

참여대상 : 유아~초등학생

문의 : 070-4369-4020

###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힘의 원천은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다. 우리시는 2015년도 예산편성 시 꼭 반영하길 원하는 사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참여기간 : 3월 21일~5월 20일

참여방법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

우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팩스 : 440-8632

인터넷 :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에 제안

문의 : 440-2254

### 시각장애 사진작가 김태훈 ‘보다’ 전

사진공간 배다리는 시각장애 사진작가 김태훈의 2014 첫 번째 이야기 ‘보다’사진전을 연다. ‘보다’는 사고로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작가의 이야기를 네 가지의 주제에 맞춰 이야기하는 전시다.

제목 : ‘보다’

일시 : 4월 11일~23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문의 : 010-5400-0897

### 제 7기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인천 기업인과 시민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남북경협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간 : 4월 16일~6월 18일(총 10강, 매주 수요일)

장소 : 인천대학교 미래관 2층 합동강의실

대상 :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 시민, 공무원, NGO 관계자 등

수강료 : 30만원(단, NGO단체 상근자는 10만원, 증빙서류 제출)

※현장방문비 별도

접수기간 : 3월 19일(수)~4월 2일(수) 12:00 까지

접수방법 : 양식(홈페이지 peace.incheon.ac.kr 공지사항)

이메일 ieape@incheon.ac.kr

문의 : 835-8706, 010-4119-333

### ‘새 일 잡(JOB)고 행복 더하기!’

인천여성취업센터와 남동산단여성새일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 지역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서비스 지원하는 ‘여성취업 파트너’다.

###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일정 : 9:30~13:30(1일 4시간, 월~금요일)

교육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실직자 및 경력 단절여성)

비용 : 전액무료(기념품 지급)

특전 : 수료증 발급(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분 구직활동 인정서 발급)

문의 : 260-3615~16

접수 : 방문, 이메일 신청(www.iwwo.or.kr)

교육내용 : 나의 마음 이해하기, 나의 특성 탐색하기, 나의 스타일 발견하기, 취업의 문 들어서기, 내 직업에 도전하기

### 국비 무료 직업 훈련생에 도전하세요

인천여성취업센터는 국비무료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하니, 취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내용
중소기업 맞춤형사무원 양성과정	4월 1일~6월 12일	월~금요일 09:30~13:20	22명	부가가치세법, DB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실습 등
중소기업 브랜드 홍보 마케터 양성과정	4월 14일~6월 25일	월~금요일 13:30~17:20	22명	전자상거래, 솔루션 구축운영, 상품촬영과 보정, 포토샵 등
온라인 마케팅 사무원 양성과정	5월 12일~8월 4일	월~금요일 09:30~13:20	24명	쇼핑몰 제작관리, 소셜마케터, 웹디자인 등
유통관리 사무원 양성과정	5월 29일~	월~금요일 09:30~13:20	24명	유통관리사 2,3급자격증, itq자격증 취득가능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교육비용 : 전액 무료

문의 : 260-3611~18

### 장애우대학 수강생 모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우대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장애인권복지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입학대상 : 장애복지관련공무원, 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사, 장애인 시설 종사자, 시민사회단체회원, 자원봉사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각 대학교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

모집인원 : 70명(3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

교육기간 : 5월 22일~10월 16일(매주 목 저녁 7:00~9:30)

등록방법 : 우편 및 내방, 온라인 접수 가능

문의 : 881-8298, 889-8298, 팩스 883-0204



### 컨택(콜)센터 전문상담사 교육생

컨택(콜)센터는 전문 상담사 교육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교육기간 : 3월 24일~11월

접수 : 연중 상시접수

인터넷 접수 : (사)인천컨택센터산업협회 홈페이지(icca.co.kr)

방문접수 : 주안교육장

모집대상 : 만 45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상 인천거주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전화문의 : 442-2777, 1855-1302

**컨택센터(Contact Center)란?** 기존의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상담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현재는 IT산업을 기반으로 이메일, 화상통화, 채팅, 원격제어 등 다양한 경로로 고객과의 상담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장소를 뜻하며, 현재 전국에 40만명 정도가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 배달부 군 망명기

조혁신 || 도서출판 작가들 || 2014

‘뒤집기 한판’, ‘삼류가 간다’의 작가 조혁신이 만 3년 만에 첫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배달부 군 망명기’. 작가 조혁신은 우리시대 하층민들이 처한 고립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뒤로 물리고 그 대신에 끊임없이 하층민들의 삶을 옥죄고 억압하는 주류사회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펼쳐 보여준다. 지역언론의 노조위원장을 맡아 저열한 현실의 속내를 치열하게 겪고 한동안 필리핀에서 지냈던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 소설은 하층민을 대변하는 배달부와 배달순 남매, 이들과 연대하는 하층의 지식인들이 자본과 권력에 대해 통쾌하게 설욕하는 통쾌담을 그리고 있다.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의 추악한 몰골과 그들의 앙상한 논리를 풍자로 일그러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을 끝없이 조롱한다. 기실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이 소설의 재미는 기성권력에 대한 통쾌한 복수의 서사와 이를 능란하게 끌어가는 조혁신 작가의 풍부한 글쓰기 재능에 있다.



인천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 인천미용협동조합

유명 영화배우이자 텔러

트 고소영은 최근 한 인터

뷰에서 “데뷔 초부터 지

금까지...아름다움을 지켰

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을

하는 미용분야 기술전문

가들이 모여 미용과 건강

을 동시에 해결하는 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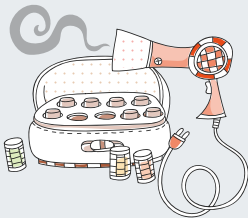
톱 토털뷰티 살롱인 인천미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층에는 향기가 가득한 카페 라베르따와 헤어·네일·메이크업 시술이 가능한 벨라헤어가 있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손님을 유혹하고, 2층에는 전문 피부관리사의 손길과 인천에 최초로 설치한 선빔기로 체형관리·지방분해가 되는 살롱 에스테틱, 3층에는 전문 트리콜로지스트 두파관리와 더불어 탈모형·패션형 맞춤가발이 가능한 알레그리아가 있다.

이처럼 아이비타운은 건물 전체를 미용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오랜 영업 및 비즈니스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와 조합원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미용협동조합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인천지역의 미용인들을 위한 행사와 전문교육, 공동구매와 불우이웃을 위한 교육 및 자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다.

인천미용협동조합의 최순자 이사장은 “현재 오픈 행사 이벤트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으며 매월 진행되는 콘셉트 할인과 문화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며, “현재 협업화된 기업형 운영방식을 더욱 안정화시켜 뷰티산업의 협업경영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대만

49

에티켓

승차 예법

50

Asiad News

‘메이저리거 추신수 인천AG 홍보 나서’ 외

52

춤 인

2014 인천장애인AG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태국

58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외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  
른다고 했던가? 타이완 생활이 점점 좋아지  
고 있을 무렵 귀국 날짜가 성큼 다가왔다. 대  
만의 타이페이는 서울과 닮은 구석이 많다.  
차이점이라면 대만 사람들이 좀더 여유 있  
고, 친절하고, 잘 웃는다는 것이다.

여유와 친절함을 두루 갖춘 나라

## 대만 Taiwan

글 · 사진 김승미 본지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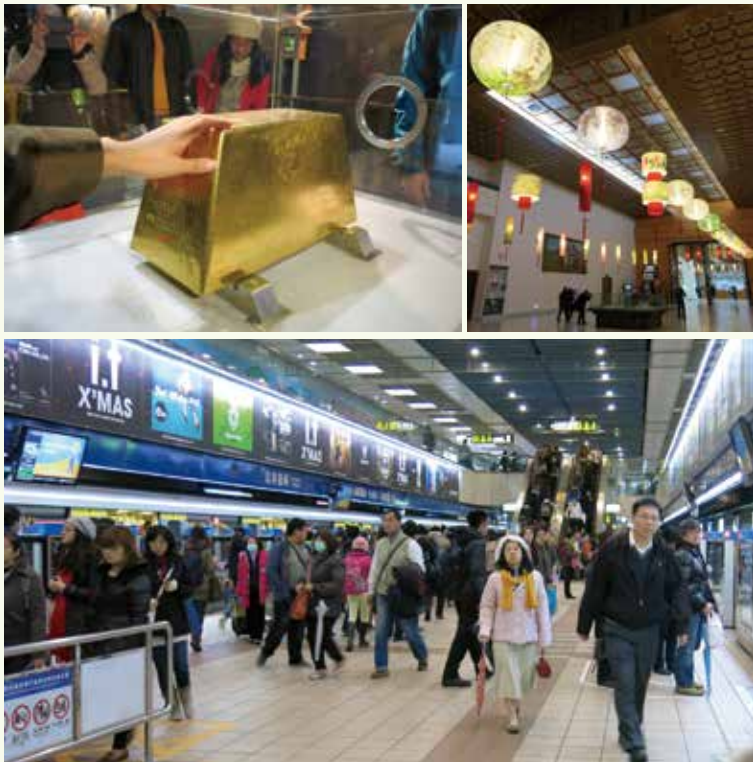


지난 2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소치 동계올림픽.  
올림픽 경기기간 동안 TV중계를 보느라 밤잠을 설친 사  
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중 여자 쇼트트랙 3천m 계주  
시상식은 소치 올림픽 중계방송 중 최고의 장면으로 꼽히  
며, 올림픽 중계방송 내 37.8%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  
렸다. 아마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아픔을 뒤로하고 8년  
만에 얻는 금메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시상대에 오른 5명의 선수 중 준결승전에서 출전  
해 제5의 멤버로 최선을 다한 공상정 선수가 화제가 되었  
다. 그녀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10년 주니어 대표로 선  
발되면서 부터였으나 국적이 문제되어 2011년 세계주니  
어선수권에 출전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  
랐지만, 대만국적을 갖고 있던 화교 3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2011년 한국으로 귀화했고, 그녀의 활약으  
로 우리 역사상 귀화한 선수가 금메달을 딴 최초의 기록  
을 남겼다.

### 중국이길 거부한 또 하나의 작은 중국, 대만

대만은 고유의 국호이며, 고유의 국기도 있다. 그러나 올  
림픽에서의 대만은 Taiwan이 아닌 Chinese Taipei이고,  
국기도 대만올림픽위원회 기가 사용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중국과 관련 있다.  
대만은 원래 중국의 영토가 아닌 원주민들이 거주했던 작  
은 섬이었다. 중국 내전에서 패전한 장개석이 1949년 대  
만으로 이주해 타이페이에 수도를 정하고 중화민국 정부  
를 출범시키면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시  
작됐으며, 이를 계기로 대만과 중국은 각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함께 나눌 수 없으  
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을 고집한  
다. 때문에 분단국가인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독  
립을 원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만의 유  
엔 가입을 중국에서 제지하고 있어,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에 고유국호와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 대만 여행 최고의 도우미 ‘대만 사람들’

대만은 아시아 대륙의 남동부 타이완 해협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일본 오키나와섬이, 남쪽으로는 필리핀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많은 국제선이 취항했고,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만 관광은 다소 생소했다. 최근 tvN ‘꽃보다 할배’에 대만편이 방영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물론 나 또한 방송을 보고 대만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대만 여행을 계획 하게 됐다. 대만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가까웠다. 약 2시간 30분이면 대만 공항에 도착한다.

처음 대만을 방문한 것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어느 지역이든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여행의 매 순간순간 친절 한 대만 사람들 덕분에 더욱 인상 깊은 곳이었다. 순박한 미소를 지닌 대만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와서 도와주려고 했고, 내가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알려주거나, 버스 기사에

## i

### 타이완 따라가기

대만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뭇잎 모양의 섬 국가이다.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23.6도로 일 년 내내 따뜻하다. 10월부터 11월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이며, 매년 2월은 춘절(중국 설날)로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대만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대만 타이베이공항으로 도착하는 노선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송산공항으로 도착하는 노선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약 2시간 30분 정도 비행을 하면 도착할 정도로 가깝다. 대만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했다면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동시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대만 현지에서 환전하거나 여행자수표를 교환하려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3시 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30분까지다. 대만에서의 일반적인 팁은 가방 1개당 NT\$300이며, 10%의 팁과 5%의 부가가치세는 식비 또는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다.

### 대만하면 ‘펑리수’, 펑리수를 아시나요

천안에는 호두과자가, 경주에는 황남빵이, 대전에는 튀김소보로가 있듯 대만에는 펑리수가 있다. 펑리수는 대만에 가면 꼭 사야할 기념품 가운데 손꼽힌다. 펑리수의 ‘펑리’는 파인애플을 뜻하며, ‘수’는 과자를 뜻한다. 즉, 쿠키처럼 생겼지만 파인애플 과육으로 가득 찬 매우 부드러운 과자이다. 달지 않고 고소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생각나며, 선물용으로도 매우 좋다.



게 내가 내려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덕분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마음 편히 여행 할 수 있었다. 타지에서 온 여행객을 대하는 대만 사람들은 최고의 여행 도우미였다.

## 깨끗하고 웅장하고 위엄 있는 중정기념당

버스를 타고 대만 시내를 이동하다보면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웅장한 중정기념당을 볼 수 있다. 중정기념당의 ‘중정’은 정치가 장개석(蔣介石)의 본명이며, 초대 총통인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1949년 모택동의 공산당이 국·공내전에 승리해 중국 본토를 차지함으로써 국민당의 주석 장개석은 대만으로 거처를 옮겼고,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국가체계를 갖춘 대만의 초대 총통이 되었다. 그후 경제성장에 집중해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섰으며 안정된 경제구조를 유지하는데 주력했다.

초대 총통 장개석을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은 1976년부터 짓기 시작해 1980년 광대한 정원 위에 높이 70m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로 지어졌다. 건물 외관의 흰색과 파란색은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지붕 처마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상징한다.

장개석이 89세의 나이로 타개한 것을 착안해 만든 98개의 계단을 올라 기념당 내부에 들어서면 6.3m 규모의 장개석 동상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그 웅장함과 더불어 도시 중앙에 기념당을 건립한 국민들의 가치관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80년에 지어져 수백 만 명의 관광객이 매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광장 모두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마치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과 같이 깨끗해 더 위엄 있고 운치 있어 보인다.

## 역사와 문화예술의 집합체, 고궁박물관과 용산사

대만의 고궁박물관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대영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4층의 중국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고궁박물관은 중국 5천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관람은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가기 보다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더 꼼꼼히 둘러볼 수 있다.

62만점에 달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고궁박물관에는 신석시 시대부터 중국 유물 중 최고의 보물들이 전시되





어 있다. 장개석 총통이 중국 본토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 있는 유물은 하나하나가 화려하고 섬세하고 정교하다. 3~6개월마다 전시물을 교체한다고 하니, 전시물을 모두 보려면 1년 365 일도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유물을 보더라도 그 옛날에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 감탄하고 놀라운데, 이곳의 유물들은 보면 볼수록 그 정교함에 혀를 두를 정도다.

고궁박물관을 나와 MRT를 타고 용산사 역에 내리면 타이페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사원을 볼 수 있다. 1738년에 지어진 용산사는 전형적인 대만의 사원인데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토속신앙 등 여러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곳이다. 용산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답답한 일이나 소원을 빌고 싶을 때 가볍게 찾아올 수 있어 대만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원이다. 때문에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현지인들의 종교 생활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인천시민 세계시민  
에티켓  
Etiquette



그림, 유환석





## 태국 여행사 · 언론사 초청 팸 투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 투어 행사를 열었다. 엑셀런트 월드, 아시안 플러스 등 방콕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 17명은 이날 조직위를 방문,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문학박태환 수영장과 선학체육관을 견학했다. 그리고 태국 응원단 유치를 위해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앞으로도 인천도 시공사 · 한국관광공사 · 대한항공 등 관계 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팸 투어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해외 관광객 20만명 유치 목표를 이룰 방침이다.

## ‘나마스떼~’ 인도 뉴델리서 인천 AG 홍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인도 뉴델리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해외 홍보 로드쇼를 개최했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에서 인도 레슬링 선수인 수철 쿠마르와 양궁선수 디피카 쿠마리를 아시아경기대회 현지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아울러 인도체육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크안데시워 하키센터 등에 3천 달러(약 320만원)를 기부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중국 광저우에서 해외 홍보 로드쇼를 열어왔다. 뉴델리 행사를 끝으로 1차 해외 홍보를 마친 조직위는 향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인천AG 카카오토리 개설, 운영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SNS를 통한 홍보와 소통을 위해 카카오토리 플러스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카카오토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경기대회의 소식을 접하고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계속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조직위는 국 · 영 · 중문 12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 아시아 각국 NOC 인천AG 사전 답사

아시아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압둘라 알자누비(Abdulelah M. Aljanoubi) 사우디아라비아 NOC 경기국장 등 체육계 대표단이 대회 참가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위해 지난달 5일 조직위를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대회에 축구, 핸드볼을 비롯해 26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402명이 참가한다. 이어 지난달 13일 아담 마스바(Adam Masbah) 싱가포르 NOC 경기부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조직위를 찾고 경기장 등 대회시설 투어에 나섰다.



## 메이저리거 추신수 인천AG 홍보 나서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나섰다. 조직위는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200일을 앞둔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 스프링 캠프에서 추신수 선수에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 조직위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출신 최고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알리는 데 적격이라고 판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추신수 선수는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메이저리그 시즌과 맞물려 아시아경기대회에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대표팀의 2연속 우승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함께 즐겨요, 인천AG”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일 송도미추홀타워에서 ㈜코코엔터테인먼트와 대회 홍보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50여 명의 개그맨을 보유한 코미디 엔터테인먼트사로 개그맨 매니지먼트, 공연 및 이벤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 즐겨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하는 국민참여 캠페인은 김준호, 김대희, 김준현, 김지민, 유민상, 홍인규 등 소속 연기자들의 참여로 아시아경기대회 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개그맨 김준호는 “국가적인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아시아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발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함께 열릴 ‘아시아음식문화축제’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지난달 14일 서울 콘두F&C에서 아시아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날 음식축제의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축제에는 아시아의 유명 레스토랑과 셰프를 초청해 각국의 전통 음식을 선보이고, 음식 전시 체험, 요리경연대회 등을 펼치게 된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스포츠를 앞세운 국가대항전 뿐 아니라 각국의 음식 각축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직위는 축제의 수익금은 아시아 저개발국의 어린이 지원사업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458-2812



## ‘D-200일’ 기념 바디퍼포먼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 200일을 앞두고 ‘D-200일’을 기념하는 바디퍼포먼스 사진을 공개했다. 무용단체 ‘서정춤세상’이 재능 기부한 이 작품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몸으로 ‘AG D-200’의 형상을 표현한 바디퍼포먼스 장면을 담고 있다. 서정춤세상의 이미지 대표는 “지난 2005년에 열린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식 때 조안무로 활동한 인연으로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국내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대형 스포츠이벤트인 만큼 여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 장애인이 편리하고 친화적인 시설 준비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장애인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경기 운영과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23개 종목별로 국제 대회 경험이 풍부한 경기단체 전문가들을 종목담당 관으로 위촉해서 전체적인 경기 기획은 물론 시설, 용구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또한 각 경기장과 훈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개선하며,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경기기술 대표들과 상시적인 업무협의로 전문화된 경기운영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특장차량과 전문 운전원을 확보하고 경기장 및 훈련장, 선수촌의 승·하차장, 주차장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선수촌 숙소 현관, 화장실 진입 경사로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 ‘장애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 계기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마당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열리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번 대회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한다. 개최 종목은 23개로 지난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19개 종목에 론볼, 요트, 휠체어댄스스포츠, 휠체어럭비 등 4개 종목을 추가하여 참가선수단이나 대회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로 치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 세계적인 IT강국 걸맞는 최첨단 대회준비

조직위는 세계적인 IT 강국에 걸맞는 최첨단 대회를 준비 중이다. 조직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록 계측과 경기운영, 장애인 선수에 대한 편의 지원 등 대회 전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정보 서비스를 구현한다. 다양하고 감동적인 문화 행사도 기대된다.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뮤지컬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박갈린 씨를 선임하고, 'Impossible Drives Us.'란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감동과 화합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체험, 전시, 이벤트도 다양하게 계획 중이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마스코트인 저노피, 드노피, 로봇 홍보단 '로보티카'를 활용한 현장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장애인 경기 종목에 대한 다양한 기획영상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이다. 인천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국제 장애인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위상을 정립한다. 더불어 아시아 각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감동의 축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의 장애인 인프라 향상은 물론이며 스포츠, 문화 분야의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인 장애인 스포츠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016 리우장애인올림픽,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장애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작은 언제

1974년 스포츠 경기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정신 및 재활,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도 증진을 취지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연맹이 출범했다. 이듬해인 1975년 제1회 대회가 일본 오이타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제2회 호주 파라마타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때부터 참가했다. 2002년 부산 대회 후 2006년에는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이 아시아장애인올림픽 위원회(APC)로 통합 창립되었다. 이후 APC 주관으로 2010년 광저우 대회(우리나라 3위)가 열렸으며, 올해 제11회 인천 대회를 열게 되었다.



### 신설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물 없는 BF 생활환경 우수인증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용으로 지어진 16개 경기장은 장애인들이 경기를 관람하거나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건축했다. 경기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했고, 모든 경기장은 장애물없는 경기장(Barrier-free) 생활환경 우수인증을 받았다.

접근 편의 시설로는 경기장 샤워실에 장애인용 샤워기를 설치했고, 휠체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경사로를 조성했다. 선수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 경기장의 모든 출입구에 이동 동선 턱을 제거했고 출입문의 크기를 넓혔다. 휠체어 관람석은 경기장 출입구에서 가깝고 관람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해 장애인들을 가장 먼저 배려했다. 주차장은 경기장과 가장 근접한 곳에 만들어 휠체어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각 경기장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평균 6~7개씩 들어서고 대회기간 중엔 장애인용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또 경기도 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비 경기장 내 응급차량 진입로를 확보했고, 장애인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 전 층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장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조성했다.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태국

## 신나는 송끄란 축제

글. 차린팁시리판야찬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아시아 각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전통·종교 등이 한자리에 모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되는 자리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곳곳의 문화와 풍습,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를 알고 느껴보자.



**태국** 정식 명칭은 타이 왕국이다.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왕 탄신일인 12월 5일은 국경일이다. 수도는 방콕으로 방콕의 인구는 약 1천6만명이다. 국토 면적은 51만 4천㎢로서 한반도의 약 2.3배에 달하며, 태국 전체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6천388만명이다. 민족 분포는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기타 1%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 분포는 불교 94.6%, 이슬람교 4.6%, 기독교 0.7%, 기타 0.1%다. 태국은 타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맹률은 6%다.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성으로, 3계절로 나뉘는데, 3월~5월은 고온이고, 6월~10월은 우기이며, 11월~2월은 비교적 저온이다. 연평균 기온은 28℃이고, 최고 기온은 32.5℃이며, 최저 기온은 23.7℃다.

가루만 발라주었는데, 세대변화로 요즘에는 물총, 색소가 든 물을 호스로 연장하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미해 축제분위기를 더 흥겹게 한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에는 미녀선발 대회가 펼쳐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나이 어리고 예쁜 미혼인 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태국 뿐만 아니라 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주한태국대사관 주관으로 해마다 의정부와 안산지역에서 송끄란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한국의 4월 중순은 날씨가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물 뿌리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대신 송끄란 축제 전통의상 퍼레이드, 미인대회, 태국음식 체험, 태국 유명 가수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태국 만큼은 아니지만 신비의 나라 태국의 설날을 한국에서 한 번쯤 체험해 본다면 그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원

#### 아시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 온 두 분을 만났는데 나라사랑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끼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잘해보자고요!'

김순엽 남구 경원대로



#### 소원을 비는 마음

태국에 머무는 동안 러이 끄라통(Loi Krathong)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바나나잎과 꽃잎 등을 엮어 만든 배를 물 위에 띄우거나 연등을 하늘로 날리며 소원을 비는 축제입니다. 축제 안에서 욕심 없는 태국인들의 소박한 바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향 남동구 석산로

#### 중국 '봄의 도시' 리장

중국 운남성 리장은 사계절 내내 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봄의 도시 춘성(春城)이라 불립니다. 유학생시절 겁도 없이 혼자 떠났던 일주일간의 여행.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여정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혜원 연수구 원인재로



#### 함께여서 더 아름답던 해변

생전 처음 우리 4형제가 함께 외국여행을 갔습니다. 태국의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해변에서 옛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어요.

황인원 서구 청라라임로



#### 마카오 타워

세계에서 열번 째로 높은 타워. 마카오 타워(338m)로 GO! GO! 송도국제도시에는 이보다 약간 작지만 하늘 높이 솟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300m)가 있습니다.

이효진 동구 송향로



#### 한 폭의 그림 같은 자금성

중국 북경의 경산에서 바라본 자금성입니다. 문 하나하나를 걸어서 통과했을 뿐인데, 이렇게 산 위에서 바라본 안개 낀 자금성은 경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숙연 계양구 안남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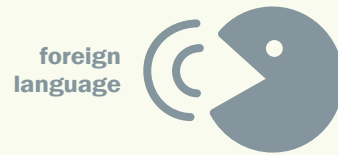
####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멋집니다. 좋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아시아 선수들의 놀라운 경기력을 보면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다. 선수들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흘린 피땀의 결과다. 선수들의 멋진 경기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것이다. 아시아 선수들의 경기를 본 뒤 ‘멋집니다’, ‘좋습니다’를 그 나라말로 건네보자. 자국선수를 칭찬하는 말에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인천사람들의 배려와 친절에 감사함을 느낄것이다.



영어

Great! / Okay / Sounds good!

그레이트 / 오케이 / 싸운즈 굿



중국어

很好看 / 很好 (병음) hěn hǎo kàn / hěn hǎo

헨 하오 칸 / 헨 하오



일본어

素晴らしいです。/ いいです。

스바라시이테스. / 이이데스.



말인어

Hebatnya

헤밧니아



베트남어

Rất đẹp. / rất tốt

럿 뎃 / 뎃 톯



이라크어

عالیه / خوب

알리/ 쿠베



몽골어

гоё байна

거여 바인



타이어

ดี / ชอบ

디 / 첵



러시아어

Красиво / Хорошо.

끄라시바 / 하라쇼



라오스어

ເກງຫາຍ / ດີຫຼາຍ

깡라이 / 디라이



우르두어  
(파키스탄)

شاندار. / سفارش کی ہے

산다르 / 쉬파레쉬 끼 해



아랍어

رائع / جميل

라-이으 / 자밀-일



## 골목에도 국가대표급 수두룩

우리나라에서는 자투리 땅에 네댓 만 모여도 족구를 하듯  
동남아에 가면 골목 빈터에서 세팍타크로를 하는 청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리퍼 신고도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공을 받아 냅니다.  
세팍타크로는 동남아 국가들이 강국입니다.  
등나무로 만든 세팍타크 공을 받는 그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 태국 메사이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